

##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조직\*의 참여자 변화과정 연구 - 근린지역사회조직화(Neighbourhood and Community Organizing) 모델의 사회 구성주의적 해석 -

안 기 덕<sup>+</sup>

(성균관대학교)

박 승 희<sup>++</sup>

(성균관대학교)

정 술

(성균관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 활동에서 지역주민이 구성한 언어를 토대로 주민조직과 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주민조직의 조직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주민조직차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문제의 발견과 주민조직을 거쳐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질적, 양적 변화의 의미를 구성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자들은 '간헐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거쳐 가치 있는 일을 통한 '나의 재구성'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참여자는 가족을 통해, 자신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재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웃을 통해, '이웃은 곧 나'라는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했다.

주제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실천,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 주민조직, 사회구성주의

---

+ 주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산업화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력을 팔아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를 떠났고, 결국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는 파괴되었다. 도심의 삶은 대부분의 지역사회를 '잠만 자는 곳(bed town)'으로 전락시켰고, 이는 무엇보다 이웃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기간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상실이 더욱 두드러진다(김종일, 2009).

다행히 공동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역사회가 최근 사회복지 영역 내에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삭막하고 비인간화 되어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번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소모임, 마을 잔치, 마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실천 활동을 통해 단절된 이웃관계를 회복시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한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실천이 단순히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문제해결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 지역주민을 주체로 적극 동참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듯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개별적, 집합적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과 민주적인 조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Weil, 2005; Renee and Macalster, 2011),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근린지역사회조직화(Neighbourhood and Community Organizing)모델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을 적용한 '주민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현재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천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조직의 참여자가 어떤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에서의 주민조직 참여자의 의미 변화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모델화 및 이론 형성 작업에 관한 연구(정무성, 1997; 황성철, 1997; 이연, 2000; 최옥채, 2005),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거나 외국 제도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함의를 찾고자 하는 연구(송정부, 1997; 이창호, 1997; 김태진·손정일·김덕진, 2000; 김수현, 2000; 홍선미, 2004),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조직화의 결정요인 및 조직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최종혁·이현, 2001; 최옥채, 2003a; 최옥채 2004; 이마리아, 2007),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경험에 관한 연구(최옥채 2003b; 김은구, 2007)등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주민조직 참여 당사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역동에 대한 고려는 적었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조직 참여자가 조직과 나의 변화과정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린지역사회조

직화모델을 기반으로 한 '주민조직'이 어떤 변화과정을 겪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 검토

### 1)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

지역사회복지실천(community practice)은 지역사회집단, 조직, 제도 또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천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Hardcastle, 2004). 한편 지역사회복지실천은 네 가지 핵심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development), 조직(organizing), 계획(planning) 그리고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action)이다. 이 네 가지 모두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실천의 주요한 방법을 구성하고 있다(Weil, 2005).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실천은 경쟁적 개념이고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의미는 없다(Popple, 1995).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실천이 시작된 이래로 지속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지는 못했고 내용에 대한 풍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Weil, 1996).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전문적사회복지실천의 방법(감정기, 2005: 31)”이라는 식의 매우 포괄적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지역사회복지실천(Community Practice)의 개념 역시, 미시적, 거시적 실천 차원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개입의 방법, 목표, 과정, 사회복지사와 지역주민의 역할 등이 혼재해 있다. 이러한 혼재성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모델이자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로 가장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이다.

이 모델은 조직화의 대상이 동네거주자 즉 지역주민이며 참여자의 리더십 및 능력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이러한 목표는 지역사회개발, 안전, 교육적 관심, 기타 협력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그리고 실천의 전 과정은 지역주민의 협동(band together)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Weil, 2005).

다시 Weil(2005)은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지역주민들이 직면하는 개별적,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 문제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조직을 세우는 것, 셋째, 지역주민들이 속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역량강화(empowering)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의 핵심은 바로 과업 성취와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우선 과업성취는 지역 사회 내 사회적 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특정 과업 달성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역량개발은 지역사회 내 지역주민들이 조직화와 리더십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사회복지사가 원조하는 것이다(Zastrow, 1999).

이처럼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을 배경으로 한 개입(intervention)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 물론 문제의 발견과 주민조직의 출발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의도된 개입과 어떻게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계기만 마련되면 참여자들 스스로가 조직의 목표를 결정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한편 조직의 목표는 어느 한 시점에 정해져 굳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 2) 사회구성주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 및 개인의 변화에 대한 의미부여는 외부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개개인이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조직 활동을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구성주의를 인식론적 입장에서 볼 때 지식은 인식하는 사람과 별개로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나 '현실'에 대한 느낌으로 구성되기보다 관찰자의 수만큼 많은 세계들 또는 실체를 만들어 내는 인식하는 사람 개인의 창조물이라는 것이다(Turner, 1996). 결국 진리는 인식하는 사람의 외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자 내부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리'로 불리는 것은 인식자 개인과 외적 세계 간의 '대응'이 아니라 인식자의 개인적 경험의 구조화를 통하여 정당화된다(Glasersfeld, 1995).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구성주의 시각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전 시기까지 인식론의 주류를 형성한 객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지나치게 인간 스스로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강조하게 된 점 때문이다.

반면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인간 개별자보다 인간의 상호작용 자체가 지식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파악하였다. 예컨대 급진적 구성주의는 학습을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의미구성으로 보았던 반면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사회적 의미 구성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만의 몸짓·태도·생각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행동(몸짓·태도·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 행동을 '상호작용'이라 부르며, 또한 상호작용을 개인들 간의 행동을 주고받음에서 이루어지는 유의미적 관계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사회구성주의의 창시자격인 비고츠키(Vygotsky)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급 내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정체성과 생물학적 차이는 오히려 타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Woolfolk, 2004).

이렇듯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단순히 개인들 간의 물리적인 행동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피차에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에 대응하여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를 두고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라 일컫는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인 미드(Mead)는 사회를 인간들의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설명하

고 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메커니즘을 인간들의 유의미한 몸짓(상징)에서 찾고 있다. 유의미한 몸짓은 서로 다른 개인들간 동일한 하나의 의미를 운반하는 언어의 상징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김중문 외, 1999).

이를 근거로 미드는 “사회심리학은 사회과정 내에 놓여 있는 개인의 활동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 개인의 행위는 오직 그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사회집단의 상징과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Mead, 1934; 김중문 외 재인용)고 말하고 있다.<sup>1)</sup>

이렇듯 사회적 구성주의는 객관적 지식의 체계로써, 실증주의 및 경험주의에 반대하고, 지식이 갖고 있는 상대성과 역사적 및 문화적 특수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김판수 외, 2000).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호주관적인 의미의 객관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지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구체적 과정은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주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의를 거쳐 객관성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지식의 객관성이란 것은 잠정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하여(Weil, 2005),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회복지사에 의해 만들어져 구조화 된 것이 아니라, 활동의 처음과 끝이 철저하게 참여 지역주민의 의사결정과정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주민조직이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조직의 목표를 세우며,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즉 주민조직 참여자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구성한 주민조직과 참여자의 변화의 의미를 탐색할 때는, 인간 개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간주관적(intersubjective)적인 의미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 유효할 것이다. 실제 우리는 사회 구성주의 시각에서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주민조직의 맥락 속에서 주체적으로 조직의 목표 뿐 아니라 개인의 의미변화를 끊임없이 구성해가는 참여자를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관계적 자아로써, 가족과 이웃을 통해 구성되는 나를 경험할 수 있는데, 주민조직 활동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족과 이웃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나’를 만나게 된다.

## 분석과제

참여자는 주민조직의 목표를 어떻게 구성해 가는가?

참여자는 주민조직의 질적·양적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주민조직 활동을 통해, 참여자 자신의 나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 사회구성주의자인 비고츠키(Vygotsky)는 의식의 사회적 차원은 일차적이고 의식의 개인적 차원은 파생적이고 이차적인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고츠키의 주장은 그와 동시대의 미국인 사회학자인 미드(Mead)의 견해와 유사하다. 비고츠키와 마찬가지로 미드도 그의 저서 “마음, 자아 그리고 사회(Mind, Self and Society)”에서 사회적 행위의 문제를 개인적 심리적 면에서 환원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김묘연, 2007).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 3. 연구방법

####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언어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조직과 참여자의 변화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지역사회 계획과 관리의 외부자적 관점(etic)에서 진행되었던 지금까지의 지역사회복지실천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실행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언어를 통해 구성된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조직과 참여자의 변화과정 연구를 내부자적 관점(emic)을 갖고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 및 장치의 하나로 지역사회복지실천을 바라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인이 되는 주민의 인식 세계에서는 어떠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지 듣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경우 일반적 사실 추구보다는 의미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적연구방법이 적절하리라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질적연구를 선택한 실천적인 의미도 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더 나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사자인 주민들의 경험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득이 어떤 차원의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들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형성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질적연구를 통해 수행해낼 의의를 지닌다.

질적연구 범주 안에서도 사례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사례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을 적용한 사례로 한정하였고 또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체 중에서 지역주민의 의미로 경계(case)짓기 또는 사례화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복잡한 현상들 중에서도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풍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사례연구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2) 자료 수집 및 참여자 선정 과정

조사대상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성질을 파악하여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연구에서는 최대변량(maximum variation) 표집방법을 통해 사례의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 둘째, 주민조직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셋째, 소속되어 있는 주민조직의 전체적 방향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조직 내 간부급 이상인자로 한정 하였다. 그 이유는 본 사례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사례를 지역사회복지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을 적용한 주민조직으로 한정하였고, 일정 기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임의 전체적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간부급의 책임을 가진 자라야 주민조직 활동 경험을 토대로 주민조직과 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충분히 구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 사이, 총 6명지역주민들을 1회에 걸쳐 만나 인터뷰 하였다. 1회 인터뷰 당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였다. 인터뷰는 대부분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장소로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수행했다. 참여자는 주민조직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되었다. 한편, 연구자 중 한명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10년 동안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조직에 참가하고 있어 참여자와의 소통에 더욱 원활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은 맥락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참여자	성별	나이(만)	활동기간	활동내용	활동단체 명
참여자 1	여	67세	4년	독거노인 방문활동	공암나루터 사랑샘
참여자 2	여	49세	10년	아동 공부방	아이사랑모임
참여자 3	여	63세	10년	마을환경개선	성산마을봉사단 '다모아회'
참여자 4	여	43세	6년	독거노인 밀반찬배달	빅맘스
참여자 5	여	43세	6년	독거노인 방문활동(말벗, 야외나들이 등)	송사리 '행복지루'
참여자6	여	50세	3년	- 부자가정 밀반찬배달 - 마을 청소	해포이웃

###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을 위한 노력

연구 결과의 엄격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질적연구방법론 스터디 그룹<sup>2)</sup>에서 자료 분석에 대해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검토를 받

2)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에서 최근 4년여 간 질적연구방법론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임이다. 스터디 모임 내에서 최초 연구 방향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고, 이후 분석과 관련해서는 스터디모임 구성원에게 정기적, 비정기적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을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해 주민조직 사업을 수행한 사회복지사들과 공유하여 조언을 받기도 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와의 인터뷰 전에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고 본 자료가 이후 익명으로 사용될 것이며 연구수행으로만 분석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참여자들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참여자들의 익명을 필히 요구할 만큼 낙인이 발생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위축감을 일으킬만한 주제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 4) 자료 분석

심층면접 자료는 총 3단계에 걸쳐 분석되었다. 먼저 질적 연구의 특성상 자료분석의 결과를 자료수집에 재반영 해야 하므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연구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초 수집된 자료는 여러 번 반복해 읽는 과정을 통해, 코딩해 나가면서 주제를 잡고 주제에 맞게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둘째는 이렇게 나타난 주제를 주제묶음으로 묶어나가는 것이었다. 셋째 이렇게 구별되어진 주제 묶음을 유목화 또는 대주제로 묶었으며 처음 전사한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예를 들면, “참여 주민의 변화”라는 대주제나 유목화는 “참여의 동인: 갇힌 세계의 탈출, ‘나’의 재구성: 가치 있는 일을 통한 나의 재발견, 가족과 ‘나’의 재구성, 나와 이웃에 대한 의미 재구성”과 같은 주제묶음으로 도출 되었다. 그리고 “참여의 동인: 갇힌 세계의 탈출”이라는 주제묶음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남, 과거로부터의 탈피, 변화가 필요했음”과 같은 단어와 주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와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전체 연구가 진행되었다.

### 4. 분석 결과

#### 1) 주민조직의 목표 및 변화 의미 구성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은 지역주민의 협동(band together)과 이들 통해 개발된 참여자들의 지도력 및 능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에 따라 결성된 주민조직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가?

##### (1) 문제의 발견과 주민조직의 출발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이 주민들을 주체적 문제 해결자로 세우고자 하지만, 그 출발인 조직의 결성은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다. 조직의 결성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지역문제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공통적으로 빈곤 문제가 편재되어 있



는 곳들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빈곤한 노인들이나 아동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 조직의 결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 주민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일 뿐이며, 문제의 발견자는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직의 결성에 의도적으로 개입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시킨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조직결성의 계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지역 사회의 모든 조직들은 교육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교육 초기에 참여자들은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하면서 주민조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마을 살리기 그런 거를 교육했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복지관을 왔다갔다 안했는데 그 때는 쉬는 그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를...(연구참여자 6)

하지만 교육의 과정은 길고 강도는 셀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린지역사회조직화모델에 따른다면 참여자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5의 경우는 매주 수요일 마다 두 시간씩 1년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수료증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1주일 혹은 2주일간 연속해서 강의 받는 경우도 있었다.

1주일 동안 교육 받을 때도 있고 지금 대충 저희 집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강사님들을 많이 초정해서 일, 이주까지 (교육) 받은 기억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3)

교육의 내용은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근린사회조직화 모형에서는 피교육자가 일방적으로 교육자의 교육 내용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교육자 스스로가 성찰하고 비판하면서 자기의 것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식(Freire 저 성찬성 역, 2007)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은 자기성찰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면서 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것은 다음의 증언에서 알 수 있다.

부모교육 자녀교육 잘 시키는 법이라고해서 몇 회기 정도 했어요. 그게 그 교육이 6개월 정도 갔어요. 부모교육 과정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게 큰 아웃라인인데 그 속에서 자기개발 자기 점검, 성찰 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은 마음으로 참여했었어요. (연구참여자 2)

한편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주민조직에서는 근린지역조직화 모형에 따라 협력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한다. 소수의 영향력 있는 지역주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 모두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실제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협력적 의사결정과정을 활용해, 참여자가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개입한다. '빅맘스' 담당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활동의 형태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복지사가 강조하였다(참여자 4사례). 이것은 주민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예시 목록을 작성하고 활동내용을 함께 결정하는 방식(김은정·김현진·오보람, 2010)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주도로 그런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주체적 문제해결자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근린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이라도 출발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주도하게 된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직접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신 지역주민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촉진자'(Zastrow, 1999)로 한정하고 있지만, 주민은 조직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가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조직의 출발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짜주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다음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 전에는 같이 활동하시고 거의 선생님(사회복지사)들이 짜주는 대로 우리가 했었는데...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분들은 우리 회(會)의 역할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차츰 오래되면서 선생님들은 밀려나가고 밀어내버리고 어떤 게 맞나?(웃음) (연구참여자 3)

## (2) 조직목표의 설정

근린 지역사회조직화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의 결성을 시도하지만, 일단 조직이 결성되면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결정하고 해결해가도록 돕는다. 조직이 결성 되면 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와 성격에 관한 의미를 구성한다. 이것은 조직의 목표나 규범 등이 참여자 외부에 객관적으로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구조기능론적 시각 등과는 달리 참여자들의 의식 교류를 통해서 간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실제 '아이사랑모임' 참여자들은 조직의 목표를 주민조직 내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구성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지역 사회 내 방임아동의 문제를 보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공부방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2가 활동하고 있는 아이사랑모임의 조직목표 설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수료 후 회원들은 사회복지사가 제시해주는 지역 내 방임아동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다가, 지역 사회 내 방임아동의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되고 공부방을 만들자는 한 회원의 제안에 토론을 거쳐서 모임의 목표를 공부방운영으로 설정하였다.

네 부족해요 많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기 민간 주민들이 조직화했을 때 우리 힘으로 뭐 하나 만들어보자 공간도 마련해서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놀고 숙제도 하고 어른들 올 때까지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지속적으로 애들을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방을 해야 한다. 그 때 공부방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같이 지내고 수시로 보살펴주고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애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방을 만든거죠. (연구참여자 2)

하지만 이러한 목표 설정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갈등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조직 내에서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의 기제가 작동하면서 다시 주민조직 내에서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다혈질인 분도 계시고 한마디만 하면 딱 언성을 높이시는 분이 계신데 또 중재하는 분이 계시요. 항상 저희가 다 끌고루 쉬었다 그래요. 중재하는 분이 계셔서 되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4)

각 주민조직은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송사리의 '행복자루'는 '주민사회복지대학'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모임이 결성된 이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활동 내용을 결정해 나가다가, 현재는 독거노인 방문활동을 조직의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 중이다(참여자 5 사례). 또한 '공암나루터 사랑샘'(참여자 1 사례)도 독거노인 방문 활동을, 성산마을 봉사단 '다모아회'(참여자 3 사례)는 마을 청소단을, '빅맘스'(참여자 4 사례)와 '해포이웃'(참여자 6 사례)은 지역 내 빈곤층을 대상으로 밀반찬 배달 활동을 참여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목표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런 목표설정은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항상 변하고 있다. 예컨대 독거노인 방문활동을 하는 '행복자루'의 회원들은 최근에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독거노인 방문활동을 하다가 청소년을 위한 지역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서 토론을 벌이다가 청소년 카페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등학교 애가 있는데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 같은 것도 청소년 카페 같은 거 편히 와가지고 책도 보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5)

여기서 우리는 주민조직의 결성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수동적인 참관자에 지나지 않았으나, 결성된 이후에는 문제의 발견자이자 조직목표의 설정자이며 문제의 해결자로서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에 단순하게 참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도 참여한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새로 발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족한 능력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요청한다.

과장님이랑 얘기해서 리더십교육을 좀 받아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회원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저께 회의를 했거든요. 처음에 OO선생(사회복지사)과 말하기를 외부에서 강사초청 이런 거 말고 선생님이 하시고 내가 경험했던 거 얘기하고 서로간의 회원들끼리 회합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말하고 거기서 방법이 나올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참여자 1)

우리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복지관 측에서 만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컴퓨터 이런 거 스마트폰 쓰고 그러는데 언니들은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연구참여자 5)

### (3) 조직의 질적인 변화의 의미

최초 주민조직은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 역할을 부여 받는다. 예컨대 사회복지사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조직을 결성하면, 그 조직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성이 조직의 활동이 시작된 다음에도 상당기간동안 수단적인 성격으로만 머물게 한다. 앞에서 우리는 조직 목표의 설정이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어디까지 사회복지사가 지정한 문제의 해결 방향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방임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조직의 결성한 '아이 사랑모임'이 주체적으로 공부방운영으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였다하더라도, 공부방운영은 방임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조직의 활동이 지속되면 조직이 문제 해결의 수단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만남은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 주민조직을 통한 만남은 이런 상호작용을 위한 계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내용은 원래 조직이 정한 목표의 경계를 넘어 확장된다. 이것을 다음의 증언들이 보여주고 있다.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정보 교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일 서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말하고... - 중략 - 누가 병원에 입원 한다면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4)

반찬모임 할 때 우리가 밥을 해 먹어요. 집에서 각자 쌀 가지고 와서 반찬거리를 사다가 같이 먹어요. 왜냐면 그냥 반찬 만들고 그냥 헤어져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연구참여자 6)

이런 활동을 위한 만남을 통해 회원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새로운 조직의 의미, 곧 새로운 문화를 구성해나간다.

대화 안 되는데도 다 알아듣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라도에서 거시기하면 다 알아듣기 저쪽에서 머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다 이래요. (연구참여자 5)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의미 및 문화의 구성은 회원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기에 이른다. 의도되지 않은 상호작용을 통한 체험과 의미의 공유는 회원과 회원 간의 연결체의 변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주민조직을 통해서 만나기 전에는 분리된 개별자였다. 특히 인간관계가 물상화(物象化)된 자본주의사회에서 회원들은 서로 낯선 개인들이다. 그러다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개인들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연결된 개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회원들은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상호 연결을 매개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일뿐이다. 그런데 목표와 무관한 내용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형성된 매개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지닌 '관계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너무 각별해요. 60대된 언니들이 우리랑 놀아줘서 고마워 이러면서도 우리 없으면 너희 힘들어 재 미없어... 맞아요. 근데 그게 언니들이랑 노는 게 세대 차이가 날거 같잖아요. (연구참여자 5)

이런 변화는 회원 간의 인간관계의 변화이다. 이것은 개별자가 유적(類的)인 존재로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제 낯선 개인들이 이웃사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 전에는 서로 지나쳐도 스쳐 지나갈 인연이었는데 만나니까 아무래도 정이 새롭고 길거리에서 봐도 같은 주민이니까 인사도 하게 되고 안부도 묻게 되는 거고. (연구참여자 6)

이런 인간관계 변화에 따라 조직의 활동이 조직의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조직의 밖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처음의 조직의 목적과는 무관한 회원의 병문안과 같은 활동으로 확대된다.

그 분도 딸하고만 있을 때는 전혀 이야기 안하다가 우리가 (병문안을) 오니까 일어나 안고 웃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좋아해요. 아파서 귀찮다고 했다가도 우리가 가면 이야기하고 사람이 오니까 반가워서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딸들도 그러니까 좋아하고. (연구참여자 3)

제가 저번에 잠깐 회사가 바뀌지는 바람에 집에 있어서 (회원들이 함께) 000씨 병문안을 갔다 올 때 우리가 모처럼 만났는데 바로 헤어지면 서운하지 않을까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럼 막걸리라도 한 잔 먹고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좋지 그래서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연구참여자 3)

이것은 주민조직이 일종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조직에 대한 의무와 충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규정하는 지속적인 실천과 소속, 관계로 존재한다(Sandal, 1983). 실제로 주민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주민조직 내에서 '친밀감'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체적 삶'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이 사회적으로 협동하며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통해 감정을 교류하면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유적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민조직은 원래 목적과는 다른 목표를 구성해나감, 조직 자체가 목표가 되는 이런 조직성격의 변화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 (4) 조직의 양적인 변화의 의미

주민조직의 결성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조직의 결성과 확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단지 수동적인 참여자일 뿐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주민조직 내에서 활

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나름의 의도하지 않은 참여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나간다. 이제 참여주민들은 자신들을 조직의 결성자 혹은 조직 확대의 주체로서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주민조직의 참여자들은 조직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해나간다. 참여주민들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모집된 '우리'를 넘어선 보다 폭 넓은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갈망을 공유해 간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거나(참여자 5) 주민조직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참여자 6)

공청회가 그런 거 같아요. (구의원이) 지역주민에게 문제점이 뭔가 갖고 와라 그러면 구의원 누구 모셔놓고 다다닥 이런 거... -중략-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뭉쳐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연구참여자 5)

서로 정을 가져보자 올해는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 6단지만 하지 말고 5단지 사람도 받아들이자 요번에 4기 교육을 해서 더 활성화를 하자 앞으로 계획이...(연구참여자 6)

이처럼 폭 넓은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지역사회활동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기(Mattessich & Monsey, 1997) 때문일 것이다. 큰 조직일수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뿐 아니라 실제 다수의 영향력이 대표성을 갖고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실천을 위한 이슈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능하면 그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소수를 넘어서 개방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한국도시연구소, 2001)는 것을 참여주민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인해 간다. 결국 참여주민들은 주민 조직 깊숙이 관여할수록 더 많은 세력이 필요했고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게 된다.

조직의 확산은 매우 어렵지만, 회원의 확대를 공감하는 회원들은 주변 사람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노인네들 보고 들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낮에 직장가고 그러니까 이런 봉사단체 이르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봉사냐 이게 안 먹혀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다 보니까 회원이 회원을 끌고 와요. (연구참여자 1)

그런가 하면 회원을 공개 모집하는 방법을 찾아가기도 한다. 예컨대 전산망을 통해서도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내기도 한다. '아이사랑모임'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방송대라는 게 방송으로 공부하는 거지 캠퍼스 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통할 방법이 인터넷 게시판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 활용을 한 거죠. 우리지역은 이런 특색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은 거죠. 방송대가 전국구잖아요. 학생들이 전국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2)

이처럼 조직 내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참여주민들은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 실천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해 가고 있다.

## 2) 참여주민의 나·가족·이웃의 의미 재구성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나와 주변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주민조직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의 맥락 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간다. 그리고 변화된 나를 가족과 이웃 속에서 재조정하면서 나와 가족,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간다.

### (1) 참여의 동인: 갇힌 세계의 탈출

주민조직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지역주민은 주부들이다. 주부인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이후 관계의 맥락이 협소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세계(life world)와 일상의식(life consciousness)은 가정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아를 비추어 주는 거울’<sup>3)</sup>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된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내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남편과 자식들에 의해 투영된 세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주부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밖을 보기 어려우므로, 갇힌 사람으로서 담장의 밖을 동경한다. 이들에게 주민조직은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된다.

주부들이 잠자고 있다가 자기의 울타리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외에(는 없어요). 이것(주민조직 활동)은 사회적인 문제라는데 관심이 있어요. 남편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진 않자나요. 사실 여자들은 그래요. 그 지역 운동(movement)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연구참여자 2)

제한된 삶의 일상세계에 부정적인 생애사건이 더해질 경우, 참여자를 더욱 궁지로 몰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울타리 밖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사치이며, 현실적 질곡의 탈피만이 절박하다. 이들이 순간적으로 찾아낸 피난처가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이다. 예컨대 참여자 1은 사업을 하는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번민을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관의 주민조직에 참여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그 시절이 좋았지. 지금은 자식들이 벌써 하나는 직장에서 하나는 사업을

3) 쿨리(Charles Horton Cooley)의 ‘거울 자아’ 개념은, 우리의 자아,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남의 정신에 어떻게 비추어 질 것인가 하는 데 관한 특정의 상상을 말한다. 우리가 갖는 자아감정(self-feeling)은 다른 사람의 정신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에 의해 결정된다(George Ritzer, 2007). 따라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자아 정체감의 형성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직장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내가 보이는 차이를 상상해 보라. 그래서 우리는 속칭 ‘이중인격자’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한다고 사업이 그렇잖나요. 지금은 내가 활동을 자꾸 찾는 것도 그런 생각들이 나를 좌우하니깐. 탈피...:(연구 참여자 1)

심지어 참여자 6은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주민조직의 문을 두드린다.

건강했는데 간에 혹이 생겨서 수술하고 강원도에서 5.6년 살다가 다시 여기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깐 무언가 변화를 가져야 되겠더라고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런 거에 뭐랄까 우울증 같은 것도 오는 거 같고 없어서 비관도 할 때 아 이걸 아는데... 이렇게 해서 계기가 됐어요. (연구참여자 6)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은 이런 현실의 탈피를 위한 피난처의 구실을 잘 해 내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 참여자는 남편을 사별한 후에 주민조직에 참여하여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저희 아저씨 돌아가시고 여기 복지관 때문에 제 마음을 많이 나름대로 위안도 삼고 얘기도 듣고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잠깐 이라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일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3)

이렇듯 주민조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존의 갇힌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전의 경계 속에 머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과감히 삶의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을 수 있다.

## (2) '나'의 재구성

이전의 삶의 경계를 넘어선 참여자들은 주민조직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삶의 동요가 일어난다.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주민조직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며, 활동은 남을 위한 봉사이다. 이런 봉사는 자신의 객관적 존재를 재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과거와 남을 위해서도 사는 현재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참여자 스스로의 존재감을 키우는 동인이 된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은 삶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경제적으로 물론 풍족하면 좋겠지만 남한테 꾸러가지 않고 내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런 가운데 마음에 여유를 갖고 주위를 돌아보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1)

그런데 이런 주민조직의 활동은 나의 객관적 존재만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체적 존재마저도 변화시켜간다. 변화의 계기는 '좁을 통한 나의 만족'이다. 준다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인데, 남에게는 그것이 절박하므로 남은 충족감을 느낀다.



작년에 몇 분 할머니를 돌볼 기회가 있어서 한 두 번씩 방문을 했는데 한집을 가니깐 그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시고 외부를 나가시질 못해 잘... 그런데 내가 할머니 머 좀 도와 드릴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고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 수 그래요. 그랬더니 안방 전기가 나간 지 일주일일 돼서 못 키고 사시는 거예요 관리실에 연락을 하죠? 그랬더니 다마(전구) 사다 놓고 연락을 하라는데 그 양반이 전구다마를 어디 가서 사냐고. 다리가 불편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할머니 돈 주세요. 제가 사다 갈아 드릴게요. 사다가 갈아 드렸더니 그렇게 고마워 하시더라구요. (연구참여자 1)

남의 충족감으로부터 주는 사람들은 만족, 더나가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남을 돕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내가 행복해지는 상호작용이 주민조직의 활동과정에서 지속된다.

그냥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재밌어요. 그 동안은 집에서만 있었고 나와 있는 계기가 없었고 일단 누구랑 부딪힌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주면 여기서 고맙다고 해주고 내가 뭔가 필요한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5)

그냥 신나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도 신나고 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니까 나에 대한 스스로 만족인거 같아요. 재밌어요.  
(연구참여자 5)

이런 맥락에서는 줌은 곧 행복이다. 이것은 봉사활동을 위해서 회비 1만원을 내는 것이 행복이라는 다음의 증언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만원의 행복(후원 회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없지만은 진짜 머 풍부한 삶은 아니지만 그 만원으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6)

주민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은 주는 것인데, 주는 것은 돈보다는 주로 일이다. 줌이 행복이라면, 일이 행복이라는 논리가 참여주민들에게 구성된다. 따라서 조직 내의 활동이나 일이 '가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아이사랑모임'에 참여한 주민의 증언을 들어보자. 이 모임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회원 간에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공부방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민간공부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회원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봉사하는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게 물질적 가치도 뛰어 넘는 걸 수도...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지역 아동센터로 전환이 되고 (예산도) 조금 받고 머 이랬다고 하면 그게 재밌는 일은 아닐꺼 같아요. 그게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 일이 그게 충분히 발휘돼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되게 기쁨이 오거든. 그거는 누가 채워주질 위해요. (연구참여자 2)

가치 있는 일은 가치 있는 나로 연결된다. 가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필요한 존재, 곧 가치 있는 존재로 떠오른다.

행복하죠. 내가 육신을 놀릴 수 있다는 게... 아 내가 솔직한 애기로 음식을 못하면 그거 하겠어요? 자신 있으니까 음식에 담벼드는 거지 진짜 못 하면은 하겠냐고.(연구참여자 6)

이것은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 이제 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인, 자신감이 없는 '내'가 아니다. '나'는 적극적인 주체로 재구성된다.

참 재밌고 신나고 살면서 이렇게 가치롭게 살아갈 때는 없었던 거 같고 나라는 존재가 존재감, 가치 이런 것이 너무나 이렇게 우월감을 가질 만큼 값이 매겨지고 그거는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같이 했던 사람들 다 같을 거라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2)

이것은 기꺼이 남에게 활동을 권유하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야(친구) 우리 이번에 회의 있는데 너도 좀 들어와 이렇게 좋아 아닌 말로 너 만원(회비) 갖고 생색 낼거 아니잖아 한명 한명 끌어드리는 거 보면은 회원들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아 만족 이랄까 그런 게 있고 성취... 참 내가 어떻게 살지만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주민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나의 주체로 구성해가기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생겼죠.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봉사하는 거는 나 자신 그니까 내가 강해지자 자신감을 갖자 자존감을 갖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 중략 -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로 나가자 내가 어디로 나갈 것이냐 복지관 여기 모임에서 봉사라는 걸 하면서 내 자존감도 살리고 약간 좀 강해지자 그러다 보면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다보면 배달도 해야죠. 후원하려면 사람을 만나야죠. 그러려면 내가 강해져야 해요. (연구참여자 4)

이런 주체적 자기의 변화는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컨대 마을 환경봉사단인 '다모아회'의 한 회원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자 하며, '아이사랑모임'에 참여하는 한 회원은 더 유쾌한 일을 찾고자 한다.

연구자: 그러면 개인적인 희망이나 바람 같은 건 있으세요?

참여자: 공부는 하고 싶죠. 정말 제가...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연구참여자 3)

저는 뭐 꼭 애들 케어하고 그 일만 꼭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 다른 거 저도 제 적성에 맞는 일들이 그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더 해서 즐겁고 더 적성에 맞고 유쾌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2)

그런가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면서 과거의 위축된 삶의 모습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독거노인 밀반찬 봉사활동을 하는 '빅맘스'의 한 회원은 '평민(탈수급자)'로 돌아갈 희망의 싹을 봉사 일을 하고 있는 자신으로부터 발견하고 있다.

저희도 처음부터 수급자 아니었거든요. 살다보니까 형편이 그렇게 돼서 됐거든요. 또 살다보면 수급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말하기를 평민이라 그래요. 평민으로 돌아 갈 거야 그래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반찬부터 시작하면서 지금은 각자 작은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는 큰 변화가 아닌가... (연구참여자 4)

이처럼 주민조직 활동에 참여 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통한 나의 재발견의 '여정(旅程)'이다. 하지만 그 종착점은 없다. 참여자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욕구를 생성하고 충족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 기대를 품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기나긴 여정 속에, 주민조직 활동의 참여자들은 새로운 세계와 부딪히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자아를 지속적으로 발견한다.

이렇듯 주민조직 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데,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고 즐거울 만한 끼리를 지속적으로 찾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는 주민 모임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모임 내에서 주는 즐거움, 기쁨이 활동을 통해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조직 활동이 누군가를 돕는 다는 의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개인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면서 삶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3) 가족과 '나'의 의미 재구성

관계론적 인간 존재론의 관점에서 보면 준거집단의 존재는 단지 우리의 정체감 유지를 돕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 구성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정진웅, 2006). 특히 가족은 1차적 준거집단이라 볼 수 있다. 가족은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타인이다. 가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의 지지는 그 어떤 힘보다 큰 힘이 된다. 주민조직에서 참여자의 활동은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조직의 활동을 통한 나의 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변화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참여주민들은 주민조직의 회원이기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족의 성원으로서, 다른 가족원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주민조직에서 활동하는 나는 그 활동을 집으로 연장시킬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독거노인 방문 활동을 하고 있는 '행복자루'의 한 회원은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심지어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오기도 한다. 이것은 가족이 주민조직의 참여자를 통해서 봉사와 연결되는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에서 일단은 지지를 많이 해줘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일단은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하계끔 해줘요. 많이 도와줘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많이 부탁을 해요. 일하고 이런 거. 그러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는 집에 가져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식구들이 다 도와줘요 (연구참여자 5)

이런 가족의 변화는 가족에 대한 주민조직 참여자 자신의 의미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남편과 사별하여 아이들을 홀로 부양하면서 독거노인 밀반찬배달 봉사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43세 여성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다. 이 여성은 이런 활동에 참여한 후로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와 가족의 협조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이 여성은 가족을 ‘남의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주는’ 주체로 재구성하면서, 그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애들이 그거(밀반찬 조리 활동)를 보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죠. 이거 왜 하느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어디서 도움을 받든 예전에 조금 받았든 지금 받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거를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를 애들한테 의미부여를 하죠. 크게는 아니구요. 애들이 거기서 배워가고 거기서 봉사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거에 또 보람을 느끼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4)

한편 이것은 가족 속의 나를 다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위 증언 중의 “애들이 그거(밀반찬 봉사활동)를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실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태 자체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참여주민(참여자4) 자신에게 현상된 것이므로, 그 현상은 가족 속에서 내가 누구라는 선각(先刻)된 정보가 투사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가족 속의 자신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와 이웃에 대한 의미 재구성

모임에서 봉사하면서 재구성된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나는 모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조직이 발전하면서 개별자들이 소중한 나와 나의 관계로 다시 태어난 인간관계도 조직 밖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 확대의 첫 걸음을 내 딛는 곳이 가족이고, 그 다음으로 다가서는 곳이 이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이웃은 거의 없다. 물리적인 이웃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주민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은 회원들과 공동체적인 인간관계를 설정하면서, 그리고 남을 통한 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한다. 모임의 회원들은 활동을 하면서 이웃은 나와는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연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웃을 관심과 배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웃은 이제 나에게 책임의 대상이다. 이것은 이 전에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쳤던, 이웃과 관련된 사소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어제 애들하고 밥을 먹고 오는데 장미 넝쿨나무가 길에 이렇게 뻗어 나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눈을 찌를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사람 지나가다 눈 찌러. ‘엄마는 그냥 가지’ 그래. 비 오는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깐 그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야. (연구참여자 1)

그런데 이런 이웃에 대한 의미의 변화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웃과 관련한 나의 의미의 변화이기도 한다. 예컨대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다모아회'의 회원은 예전과는 달리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과 가로등이 문제가 있으면 관리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여 고쳐나간다. 이는 참여자의 권리의식이다. 따라서 이제 나는 이웃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웃 속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조직 참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사람들에게 이웃은 나의 연장인 동시에 나는 이웃의 일부이고, 이웃이 나가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나는 이웃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바깥에 정비가 잘 되어있고 자꾸 손봐서 잘되어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우리가 수시로 가서 해보거든요. 뭐가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 그리고 관리실에 얘기하면 고쳐주시고 또 고쳤는데 잘 안 돌아가더라구요. 한번은 확확 돌아가야 되는데 탁탁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서 이야기하면 다시 손봐주시고 마을 일이라면... (연구참여자 3)

새벽에 나가서 보면 등이 나가가지고 껌껌해가지고 등이 없는 줄 알았어요. 관리실하고 같이 낮에 보니까 환히 켜져 있는 거예요. 등이 저렇게 있는데 불을 안 켜놓으니까 껌껌하구나. 그런 것도 보고 얘기하면 저렇게 해주는 구나(연구참여자 3)

이렇듯 참여자는 가족이라는 1차적 준거집단과의 관계망을 벗어나 지역사회, 이웃으로 확장된 관계망 속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주민조직 활동 그 자체가 주는 만족감에 머물지 않는다. 주민조직 활동은 참여자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주민조직 활동의 참여자들은 새로운 세계와 부딪히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다. 결국 핵심은 참여자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소중한 활동들과 존재감을 투영해 주는 환경(주민조직 활동)에 참여자들의 정체감을 빚지고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 활동을 통해, '참여자가 주민조직과 나의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으로부터 주민조직, 개인 차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질문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내부자적 관점(emic) 갖고, 일반적 사실 추구보다는 의미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은 이론적 실마리를 통해, 연구문제 및 분석과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과제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먼저 참여주민이 구성한 조직 차원의 변화과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발견과 주민조직의 출발의 의미를 구성한다. 근린 지역사회조직화모델이 주민을 주체적인 문제해결자로 세우고자 하지만 그 출발인 조직의 결성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가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출발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짜주는 대로 움직이고 있

었다. 둘째, 조직목표의 설정 단계이다. 일단 사회복지사에 의해 조직이 결성된 이후, 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민조직의 목표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 이 단계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자들은 문제의 발견자이자 조직목표의 설정자이며 문제의 해결자로서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셋째, 조직의 질적인 변화의 의미를 구성한다. 참여 주민에 의해서 조직목표가 설정되고 활동이 시작된 다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조직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적, 수단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주민조직 활동을 통해 조직은 점차적으로 참여 주민들 간의 친밀감과 공동체적인 연대감이 더 중요한 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 자체가 목표가 되는 조직성격의 변화는 조직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형식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인인 참여의 원동력이 된다. 넷째, 조직의 양적인 변화의 의미를 구성한다. 주민조직 내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참여자들은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함을 공유해 나간다. 이에 주변 관계망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참여 주민을 모집하는 실천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참여주민이 구성한 개인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의미는 아래와 같다.

첫째, 참여의 동인 단계로써 참여자들은 '간헐 세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다. 주민조직에 참여하는 대다수인 주부들의 특성상 결혼과 출산 이후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해지는 경우가 많다. 주부들이 주민조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정이라는 한정된 생활 경계를 과감히 벗어나는 행위이다. 둘째, '나'의 재구성 단계로써 가치 있는 일을 통한 자신의 재발견이라는 의미를 구성한다. 가치 있는 일은 가치 있는 나로 연결된다. 가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필요한 존재, 곧 가치 있는 존재로 떠오른다. 이렇듯 주민조직에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통한 나의 재발견의 '여정'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가족과 이웃을 통해, 나를 재구성 한다. 주민조직이 발전하면서 개별자들이 소중한 너와 나의 관계로 다시 태어난 인간관계도 조직 밖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 그 확대의 첫 걸음을 내딛는 곳이 가족이고, 그 다음으로 다가서는 곳이 이웃이다. 먼저 가족에 대한 의미 재구성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인정을 통해 실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편 이것은 가족 속의 자신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재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웃에 대한 의미 재구성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활동을 통해 이웃은 나와는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연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웃에 대한 의미 변화는 이웃과 관련한 나의 의미변화이기도 하다. 이제 나는 이웃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웃 속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참여자가 사회복지사가 규정한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조직 내에서의 질적·양적인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주민조직을 '문제해결자' 그 자체를 넘어선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나름의 참여방식에 대한 비법도 갖고 있다. 이처럼 창발(創發)적인 생각들이 주민조직 내에 넘쳐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주민조직 활동에 개입할 때, 근린 지역사회조직화모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창발적인 생각들이 표현되고, 지속

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논의는 지역사회 내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 클라이언트는 바로 지역사회라는 관점인데(최옥채, 2001; 김종일, 2009), 이제는 지역주민에게도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구적 수단'으로 많이 논의 되어왔다. 그럴 경우, 어떻게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갖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지역주민은 스스로의 기회와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개입의 방향은 비단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이 오랜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실천 활동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근린 지역사회조직화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바, 새로운 사례의 발굴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개입 주체를 사회복지사로 한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기관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주민조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실천의 개입 주체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시민단체 활동가이다. 따라서 시민단체 활동가의 개입에 의한 주민조직 활동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감정기·백종만·김찬우. 2005. 『지역사회복지론 :이론·기술·현장』. 파주: 나남.
- 김묘연. 2007. “사회구성주의와 도덕교육: 비고츠키 이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은아. 2007.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은정·김현진·오보람. 2010. “빈곤 한부모 자조집단의 변화에 관한 참여실행연구”. 『사회복지연구』, 41(1): 5-37.
- 김종문 외. 1999. 『구성주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일. 200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태진·손정일·김덕진. 2000.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61-485.
- 보건복지부. 2011.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 성찬성 역. 1997. 페다고지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 Freire, Paulo, translated by Myra Bergman Ramos. 1972. Pedagogy of the oppressed. 서울: 한마당.
- 송정부. 1997.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실천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9-103.

- 김수현. 2000.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그 이상과 현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1-208.
- 이마리아. 2007. "지역사회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 7: 57-84.
- 이연. 2000. "향약공동체운동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99-614.
- 이인재. 2007.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의미와 주체". 『상황과 복지』, 11:205-233.
- 이창호. 1997. "지역 복지공동체 운동의 실천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4-78.
- 정무성. 1997.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1-37
- 정진웅. 2006. 『노년의 문화인류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 최옥채. 2001. 『지역사회실천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최옥채. 2003a.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자원 만들기과 활용-개인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66-281.
- 최옥채. 2003b.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2:301-324.
- 최옥채. 2004. "조직화 기술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의 후원회 조직화 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53-170.
- 최옥채. 2005. "지역사회복지실천 이론의 적용과 모형화 실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 자료집: 297-311.
- 최중혁·이현. 200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조직화에 관한 요인-영구임대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84-605.
- 한국도시연구소. 2001. "현장에서 배우는 주민조직방법론". 한국도시연구소.
- 홍선미. 2004.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실천 -복지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기반의 실천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59-75.
- 황성철. 1997. "지역사회복지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4-20.
- Popple, K. 1995. *Analysing Community Work -its theory and practic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Glaserfeld, E. von. 1995. *Radical constructivism : A way of knowing and learning*. London : The Falmer Press.
- Mattessich, P. & Monsey, B. 1997.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Minnesota: Amherst H. Wilder Foundation.
- Renee, M. & Mcalister, S. 2011. "Community Organizing as an Education Reform Strategy". *Education Digest*, 76(9): 40-47.
- Mead, G. H. 1934. *Mind, Self,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 Behavio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ndel, M. 1983.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dcastle, D. A. 2004. *Community Practice - theories and skills for social work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il, M. 1996. "Model Development in Community Practice: A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3(3/4): 5-67.

Weil, M. 2005. The handbook of Community Practice,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Turner, F. J. 1996. Social Work Trea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Woolfolk, A. 2004. Education psychology. Boston, MA: Pearson Allyn & Bacon.

Zastrow C. H. 1999. The Practice of Social Work, CA: Brooks/Cole.

**A Study on Changed Experience of Community Organizing  
Members in Community Service Center  
-Social Constructive Analysis Focusing Neighbourhood  
and Community Organizing Model-**

**Ahn, Gi-Doek**

(Sungkunkwan Univ.)

**Park, Seung-Hee**

(Sungkunkwan Univ.)

**Jeong, Sol**

(Sungkunkwan Univ.)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mean of neighbourhood and community organizing model on lived experiences of their organizing and members which had changed.

The methods of collecting data was progressed in depth interview. According to study questions and analysis challenges based on theory, we analyzed texts.

outcome of study we understood experiences of their organizing and members which had changed.

In changing phases of organizational dimension, meaning of 'the discovery of the community problem' was extracted. In this time, organization's members set the goal and experienc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of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changing phases of individual dimension were followed, which are 'escaping from locked life', 'reconstruction of self image',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both family and self-concept' as well as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both neighbourhood and self-concept'.

Conclusively, we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 which might increase the effect of neighbourhood and community organizing model.

**Key words:** community service center, community practice, neighbourhood and community organizing, community organizing, social constructivism

[논문 접수일 : 11. 07. 28, 심사일 : 11. 08. 16, 게재 확정일 : 11. 11. 15]